



## 01

표준발음이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할다[할따]
- ② 밭계[밭:계]
- ③ 엮거나[엮꺼나]
- ④ 맑고[막꼬]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360쪽, 362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① 표준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두 개의 자음으로 된 겹받침 가운데, 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앞에서 ‘ㄱ’은 [기]으로[뭉[뭉], 뭉도[뭉도]), ‘ㄴ’은 [니]으로 발음되고[었다[언따]), ‘ㄷ, ㄷ, ㅌ’은 [리]로 발음되며[았다[알:따], 외곶[외곶], 훑다[훑따]), ‘ㅂ’은 [비]으로 발음된다[값[갑]). 이에 따라 ‘할다’의 발음은, 어간 ‘할-’의 겹받침 ‘ㅌ’이 자음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리]로 발음되는데, 여기에 표준발음법 제25항에 따라 어간 받침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까닭에 [할따]이다.

② 표준발음법 제10항 단서에 따르면 ‘밭계’의 ‘밭-’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함으로써 첫째 받침이 탈락한다. 이때 표준발음법 제25항에 따라 어간 받침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을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밭계’의 발음은 [밭:계]이다.

③ 표준발음법 제11항에 따르면 겹받침 ‘ㄹ, ㄹ,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비]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리]로 발음한다. 이에 따라 ‘엮거나’의 경우에 ‘엮-’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리]로 발음한다. ‘엮-[알-]’인데, 여기에 표준발음법 제23항에 따라 어간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까닭에 ‘엮거나[엮꺼나]’이다.

④ 표준발음법 제11항 단서에 따르면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이와 동일한 ‘ㄱ’이 탈락하고 첫째 받침인 [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맑고’의 경우, ‘맑-[말-]’에다가 표준발음법 제23항에 따라 어간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까닭에 [말꼬]이다. 따라서 ‘맑고’는 [막꼬]가 아니라 [말꼬]로 고쳐 발음하는 게 맞다. 정답이다.

## 02

말줄 친 절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나는 영수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
- ② 영수가 한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 ③ 나는 영수가 애쓴 사실을 알고 있다.
- ④ 영수가 들은 소문은 헛소문이었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128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동격관형절은 안긴문장에 문장성분을 완전히 갖춤으로써 생략된 성분이 없다. 반면 관계관형절은 안긴문장에 안은문장과 공통되는 성분이 생략됨으로써 안긴문장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안긴문장 속의 주어, 목적어, 보어 등 일정한 성분이 된다. 주어진 문제는, 관형절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유형이다.

① “나는 영수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에서 ‘음식’을 꾸미는 관형절 ‘영수가 만든’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영수가 음식을 만든다.’이다. 안긴문장인 {영수가 만든}은, 목적어 ‘음식’이 생략된 관형절이다. 이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 ‘음식’은 전체 문장의 서술절(이중주어문 서술절 ‘음식이 맛있다.’)의 주어로 쓰였다. 관계관형절이다.

② “영수가 한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에서 ‘질문’을 꾸미는 관형절 ‘영수가 한’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영수가 질문을 한다.’이다. 안긴문장인 {영수가 한}은, 목적어 ‘질문’이 생략된 관형절이다. 이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 ‘질문’은 전체 문장의 주어로 쓰였다. 관계관형절이다.

③ “나는 영수가 애쓴 사실을 알고 있다.”에서 ‘사실’을 꾸미는 관형절 ‘영수가 애쓴’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영수가 애쓰다.’이다. 안긴문장인 {영수가 애쓰}은, 기본 문형이며, 생략된 성분은 없다. 관형절로 체언인 ‘사실’을 꾸미면서 동격이다. 동격관형절이며, ①②④가 관계관형절인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정답이다.

④ “영수가 들은 소문은 헛소문이었다.”에서 ‘소문’을 꾸미는 관형절 ‘영수가 들은’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영수가 소문을 듣다.’이다. 안긴문장인 {영수가 들은}은, 목적어 ‘소문’이 생략된 관형절이다. 이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 ‘소문’은 전체 문장의 주어로 쓰였다. 관계관형절이다.

**03**  
 밑줄 친 부분에서 선어말어미 '-겠-'의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7급

-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오겠다.
-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겠다.
-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103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선어말어미 '-겠-'은 일반적으로 미래시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 말하는 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담화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오겠다.”에서 밑줄 친 ‘오겠다’의 ‘-겠-’은, 용언의 어간 ‘오-’ 뒤에 붙어,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쓰였다.
-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겠다.”에서 밑줄 친 ‘먹겠다’의 ‘-겠-’은, 용언의 어간 ‘먹-’ 뒤에 붙어, 현재의 사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쓰였다.
-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에서 밑줄 친 ‘가겠다고’의 ‘-겠-’은, 용언의 어간 ‘가-’ 뒤에 붙어,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쓰였다. ①②④가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인 것과 달리 ③은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다. 정답이다.
-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에서 밑줄 친 ‘도착하겠구나’의 ‘-겠-’은, 용언의 어간 ‘도착하-’ 뒤에 붙어,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쓰였다.

**04**  
 외래어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옐로카드(yellow card), 스태프(staff), 케이크(cake)
- ② 가디건(cardigan), 뷔페(buffet), 캐러멜(caramel)
- ③ 냅킨(napkin), 점퍼(jumper), 초콜릿(chocolate)
- ④ 팡파레(fanfare), 크로켓(croquette), 마사지(massage)

정답 ①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388쪽, 389쪽, 390쪽, 391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① yellow card 옐로카드, staff 스태프, cake 케이크  
 ‘yellow[jélou]’의 한글 표기는, ‘옐로’이다. ‘옐로우’로 적지 않는다. ‘옐로’인 것은, 외래어표기법 제3장 제1절 제9항에 따라 반모

음 [j]를 뒤따르는 모음 [e]와 합쳐 ‘예’로 적고, 제6항에 따라 어종의 [l]을 모음 앞에서 ‘ㄹ’로 적는데, 제8항에서 중모음 “[ou]는 ‘오’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결과이다. ‘card[kɑ:d]’의 한글 표기는, ‘카드’이다. ‘카드’인 것은, 외래어표기법의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발음 [kɑ:d]에서 모음 앞 무성파열음 [k]를 ‘ㅋ’으로, 장모음(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음) [ɑ:]를 ‘아’로, 어말 유성파열음 [d]는 ‘드’로 적은 결과이다. 따라서 ‘yellow card’의 한글 표기는 ‘옐로카드’이다. 이때 원어에서 띄어 쓴 대로 ‘옐로V카드’로 표기하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staff[stæf]’의 한글 표기는 ‘스태프’이다. ‘스탱’으로 적지 않는다. ‘스태프’인 것은, 발음 [stæf]에서 자음 앞 마찰음 [s]를 ‘스’로, 모음 앞 무성파열음 [t]를 ‘ㅌ’으로, 모음 [æ]를 ‘애’로, 어말 마찰음 [f]를 ‘프’로 적은 결과이다.

‘cake[keik]’의 한글 표기는 ‘케이크’이다. ‘케이’, ‘케이’로 적지 않는다. ‘케이’인 것은, 외래어표기법 제3장 제1절 제1항 3.에 따라 cake[keik]의 어말 무성파열음 [k]는 ‘으’를 붙여 적은 결과이다.

② cardigan 가디건× ↔ 카디건, buffet 뷔페, caramel 캐러멜  
 ‘cardigan[ká:digən]’의 한글 표기는, ‘카디건’이다. ‘가디건’으로 적지 않는다. ‘카디건’인 것은, 발음 [ká:digən]에서 모음 앞 무성파열음 [k]를 ‘ㅋ’으로 표기한 결과이다.

‘buffet[byfe]’의 한글 표기는, ‘뷔페’이다. ‘부페’로 적지 않는다. ‘뷔페’인 것은, 프랑스어 발음 [byfe]에서 모음 앞 유성파열음 [b]은 ‘ㅂ’으로, 모음 [y]는 ‘위’로, 모음 앞 마찰음 [f]는 ‘프’으로, 모음 [ɛ]는 ‘에’로 적은 결과이다.

‘caramel[kærəmel]’의 한글 표기는 ‘캐러멜’이다. ‘카라멜’로 적지 않는다. ‘캐러멜’인 것은, 발음 [kærəmel]에서 모음 앞 무성파열음 [k]를 ‘ㅋ’으로, 모음 [æ]를 ‘애’로, 모음 앞 마찰음 [r]를 ‘ㄹ’로, 모음 [ə]를 ‘어’로, 모음 앞 비음 [m]을 ‘ㅁ’으로, 모음 [ɛ]를 ‘에’로, 어말 유음 [l]을 ‘ㄹ’로 적은 결과이다.

③ napkin 냅킨, jumper 점퍼, chocolate 초콜릿× ↔ 초콜릿  
 ‘napkin[næpkin]’의 한글 표기는 ‘냅킨’이다. ‘내프킨’으로 적지 않는다. ‘냅킨’인 것은, 외래어표기법 제3장 제1절 제1항 2.에 따라 짧은 모음([æ])과 유음·비음 이외의 자음([k]) 사이에 오는 무성파열음 [p]를 받침 ‘ㅂ’으로 적은 결과이다.

‘jumper[dʒʌmpə]’의 한글 표기는 ‘점퍼’이다. ‘잠퍼’로 적지 않는다. ‘잠바’로 표기할 수는 있다. ‘점퍼’인 것은, 발음 [dʒʌmpə]에서 모음 앞 파찰음 [dʒ]은 ‘ㅈ’으로, 모음 [ʌ]는 ‘어’로, 자음 앞 비음 [m]은 ‘ㅂ’으로, 모음 앞 무성파열음 [p]는 ‘ㅍ’으로, 모음 [ə]는 ‘어’로 적은 결과이다.

‘chocolate[tʃɔ:kəlit]’의 한글 표기는 ‘초콜릿’이다. ‘초콜렛’으로 적지 않는다. ‘초콜릿’인 것은, 발음 [tʃɔ:kəlit]을 외래어표기법의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적으면 ‘초컬릿’인데,

둘째 음절을 '오'로 발음하는 경향에 의하여 '초콜릿'으로 적는 것을 존중하여, 즉 외래어표기법 제1장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라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④ fanfare 팡파레 × ↔ 팡파르, croquette 크로켓, massage 마사지

'fanfare[fāfa:rɪ]'의 한글 표기는 '팡파르'이다. '팡파레'로 적지 않는다. '팡파르'인 것은, 프랑스어 발음 [fāfa:rɪ]를 외래어표기법의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적은 결과이다.

'croquette[kroukét]'의 한글 표기는 '크로켓'이다. '크로우켓, 크로케트'로 적지 않는다. '크로켓'인 것은, 외래어표기법 제3장 제1절 제6항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적는다."는 규정과, 제1항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t])은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massage[másɑ:ʒɪ]'의 한글 표기는 '마사지'이다. '맛사지'로 적지 않는다. '마사지'인 것은, 된소리에 가까운 발음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과, 외래어표기법 제3장 제1절 제3항 "3. 어말의 [ʒ]는 '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 05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7급

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흐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 풋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퍼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502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주어진 <보기>의 시는, 유치환(1908~1967) 시인의 '깃발'이다. 이 시는, 이상향을 '푸른 해원'으로 형상화하여, 초월적 세계를 향하는 시적 화자의 염원을 '깃발'에 담아내고 있다. '깃발'에 담긴 원관념을 다양화시킨 보조관념으로 ㉠ 아우성, ㉡ 손수건, '순정', '애수', ㉣ 마음의 시어를 써서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아우성은, 펄럭이는 '깃발'의 모습에 비유하여 '소리 없는 아우성'의 역설적 표현으로써 이상향에 도달하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단어이다.

㉡ 손수건은,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움과 향수의 대상으로 비유하여 '깃발'에 담긴 '이상향에 대한 동경'에 대한 보조관념으로 쓴 단어이다.

㉣ 마음은, '아우성, 손수건, 순정, 애수' 등과 함께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과 같은 '깃발'의 시적 이미지를 중첩하여 전개하고자 쓴 보조관념으로 쓴 단어이다.

그러나 ㉢ 풋대는, 깃발이 묶여 있는 대상이며, 풋대가 있는 곳이 현실적 삶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상향으로 갈 수 없는 한계상황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정리하면 ㉠ 아우성, ㉡ 손수건, ㉣ 마음'이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가리키는 것과는 달리 ㉢ 풋대는 '이상향에 대한 한계상황'을 가리킨다. 따라서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 풋대이다.

## 06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 ② 그는 여직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
- ③ 두리뭉실하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
- ④ 살짝 주책스러운 면이 있지만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다.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326쪽, 341쪽, 342쪽, 345쪽, 349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에서 밑줄 친 '말아라'는, 2015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에서 추가된 표준어이다. '말다'에 명령형 어미 '-아, -아라, -아요' 등이 결합할 때는 '마, 마라, 마요'처럼 어간 끝의 'ㄴ'이 탈락하기도 하고 '말아, 말아라, 말아요'처럼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 현재 표준적 활용형과 용법 같은 활용형으로 인정한 복수 표준형이다.

② "그는 여직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에서 밑줄 친 '여직껏'은, 비표준어이다. 표준어로는 '여태껏, 이제껏, 입때껏'가 있는데, 이는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복수표준어이다. 어떤 행동이나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어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 '여태'를 강조하여 이른다. 정답이다.

③ "두리뭉실하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에서 밑줄 친 '두리뭉실하게'는, 2011년 별도 표준어로 '두리뭉실하다'를 추가하기 전에는 표준어가 아니었으나 현재는 '두루뭉술하다'와 함

계 표준어이다.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차이가 존재한다. 형용사로, 'ㄱ. 특별히 모나거나 튀지 않고 둥그스름하다. ㄴ. 말이나 태도 따위가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다.'를 뜻한다.

④ "살짝 주책스러운 면이 있지만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다."에서 밑줄 친 '주책스러운'은, '일정한 짓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는 데가 있다.'는 '주책스럽다'의 활용형으로, '주책맞다'와 함께 표준어이다. 한편 '주책이다'는, '없다'를 빼고 쓰면서도 의미는 반대가 되지 않고 '주책없다'와 같은 의미로 쓰는 잘못된 용법으로 보아, 예전에는 '주책없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표준어 추가 결과'에 따르면 현실에서 '주책이다'도 널리 쓰이며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주책이다'는, '일정한 짓대가 없이 되는데로 하는 짓'을 뜻하는 '주책'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말로,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나도 참 주책이다.'와 같은 예문으로 쓴다. 그러나 체언 '주책'에 '-이다'가 붙은 말이어서 사전의 표제어에는 올라가 있지 않다.

**0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국어의 '있다'는 경우에 따라 ㉠ 동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다.
-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
-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 ④ 비도 오니 그냥 집에 있자.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59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있다'는 기본형, 감탄형일 때에는 '형용사'와 같은 활용을 하며, 현재 관형사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에서는 '동사'와 같은 활용을 한다.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다."에서 밑줄 친 '있다'는, 현재 관형사형으로 ㉠ 동사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이때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를 뜻하는 동사이다.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에서 밑줄 친 '있으시다'는, 기본형 '있다'에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를 결합한 활용형으로 '형용사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이때 '있다'는,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다. 정답이다.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에서 밑줄 친 '있어라'는, 명령형으로 ㉠ 동사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이때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를 뜻하는 동사이다.

④ "비도 오니 그냥 집에 있자."에서 밑줄 친 '있자'는, 청유형으로 ㉠ 동사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이때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를 뜻하는 동사이다.

**08**  
 사이시옷 표기가 모두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봉엿빵 - 공붓벌레
- ② 마긋간 - 인삿말
- ③ 공깃밥 - 백짚장
- ④ 도맷값 - 머릿털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272쪽, 275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사이시옷'은, 순우리말끼리 결합하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 중, 앞말의 끝모음 뒤가 폐쇄되는 구조로서 i)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 등이 된소리로 나는 것, ii) 폐쇄시키는 음([ㄷ])이 뒤의 'ㄴ, ㄹ'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것, iii) 뒷말의 첫소리로 [ㄴ]이 첨가되면서 폐쇄시키는 음([ㄷ])이 동화되어 [ㄴㄴ]으로 발음되는 것에 붙여 적기로 한 'ㅅ'이다. '폐쇄되는 구조'라고 함은 폐쇄시키는 음인 [ㄷ]이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개구멍'은 발음 [개:구멍]을 보면 '개'와 '구멍' 사이에 폐쇄시키는 음인 [ㄷ]이 개입하지 않지만, '갯값'은 [개:값, 값:값]처럼 된소리로 발음되어 '개'와 '값' 사이에 폐쇄시키는 음인 [ㄷ]이 개입한다. 폐쇄되는 구조 여부는 사이시옷의 표기를 결정하는 조건의 하나이다. 한편 앞말의 끝이 폐쇄되는 구조로서, 한글맞춤법 제30항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① 봉엿빵 × ↔ 봉어빵, 공붓벌레  
 '봉엿빵'은, '봉어'와 '빵'의 합성어로, 뒷말(빵)의 첫소리가 된소리(ㅃ)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봉어빵'으로 고쳐 적어야 맞다.

'공붓벌레'는, 한자어 '공부(工夫)'와 순우리말 '벌레'의 합성어로, 뒷말(벌레)의 첫소리 'ㅂ'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② 마긋간 × ↔ 마구간, 인삿말 × ↔ 인삿말  
 '마긋간'은, 한자어 '마구(馬廐)'와 한자어 '간(間)'의 합성어로, 두 음절로 된 한자어 '긋간, 셋방, 숫자, 찻간, 튀간, 횡수' 6개 외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마구간'으로 고쳐 적어야 맞다.

‘인삿말’은, 한자어 ‘인사(人事)’와 순우리말 ‘말’의 합성어로, 앞말(인사)과 뒷말(말)의 사이에 폐쇄시키는 음인 [디]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즉,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ㄹ’이지만 그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지 않아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은 경우이다. ‘인사말’로 고쳐 적어야 맞다. ‘머리말’도 ‘머릿말’로 적지 않는다.

③ 공깃밥, 백짓장 × ↔ 백지장

‘공깃밥’은, 한자어 ‘공기(空器)’와 순우리말 ‘밥’의 합성어로, 뒷말(벌레)의 첫소리 ‘ㅂ’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백짓장’은, 한자어 ‘백지(白紙)’와 한자어 ‘장(張)’의 합성어로, 한글맞춤법 제30항 3.의 두 음절로 된 한자어 6개 외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백지장’으로 고쳐 적어야 맞다.

④ 도맷값, 머릿털 × ↔ 머리털

‘도맷값’은, 한자어 ‘도매(都賣)’와 순우리말 ‘값’의 합성어로, 뒷말(값)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머릿털’은, ‘머리’와 ‘털’의 합성어로, 뒷말(털)의 첫소리가 거센소리(ㅌ)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머리털’로 고쳐 적어야 맞다.

**09**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 보기 |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버지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 하, 바로 거기에 아버지가 와 앉아 있겠지요. (㉡) 아버지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버지를 알아보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아버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	㉡	㉢	㉣
①	그런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②	그런데	그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③	그랬더니	그런데	그래	그러니까
④	그랬더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85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주어진 〈보기〉는, 주요섭(1902~1972)의 단편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일부이다. 사랑손님과 옥희 어머니의 미묘

한 사랑과 심리적 갈등을 옥희 ‘나’의 눈을 통하여 표현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작품이다. 이 문제는, 〈보기〉의 ㉠~㉣에 들어갈 접속어를 찾는 유형이다. 접속어가 들어갈 자리의 앞뒤 문장을 보면서 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 앞 문장은, ‘나가’ 아버지의 예배당 참석 여부를 궁금하면서 남자석을 바라봤다는 내용이다. 뒤 문장은 아버지가 참석했다는 내용이다. 앞뒤 문장을 순접관계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랬더니’ 중에서 ‘그랬더니’의 ‘-더니’가 ‘과거의 사태나 행동에 뒤이어 일어난 상황을 이어주는 연결어미’이므로 ‘그랬더니’를 고른다. ㉠②를 버리고 ㉢④를 선택한다.

㉡ 앞 문장은 아버지가 예배당에 참석했다는 내용이며, 뒤 문장은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뒤 문장을 전환관계로 연결할 수 있다. ㉢④의 접속부사가 모두 ‘그런데’이다.

㉢ 앞 문장은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내용이며, 뒤 문장은 ‘나가’ 손을 흔들었다는 내용이다. 앞뒤 문장을 인과관계로 연결할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를지 애매하다.

㉣ 앞 문장은 ‘나가’ 손을 흔들었다는 내용이며, 뒤 문장은 아버지가 얼른 고개를 숙였다는 내용이다. 앞뒤 문장을 인과관계로 연결할 수 있다. 역시 ‘그래’, ‘그러니까’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를지 애매하다.

한편 ‘그래’는, 동사 ‘그리하다’의 어간 ‘그리하-’ 뒤에 ‘-여’가 붙은 ‘그리하여’가 줄어든 말이며, ‘그러니까’는, 동사 ‘그리하다’의 어간 ‘그리하-’ 뒤에 ‘-니까’가 붙은 ‘그리하니까’가 줄어든 말이다. 접속부사 대신에 어미를 써서 문장을 연결할 때에는 ‘-여’를 붙여 자연스러운 문맥이면 ‘그래’를 쓰고, ‘-니까’를 붙여 자연스러운 문맥이면 ‘그러니까’를 쓸 수 있다.

- “아버지는 ~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1. “아버지는 ~ 멀거니 보고만 있어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 ㉢-2. “아버지는 ~ 멀거니 보고만 있으니까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아버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 ㉣-1. “나는 손을 흔들어 아버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
  - ㉣-2. “나는 손을 흔드니까 아버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

위에서 부자연스러운 문장은 ㉣-1이다. 여기에서 ㉣에 들어갈 말이 ‘그러니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에는 ‘그래’를 넣어야 한다. 따라서 ㉣에는 ‘그래’를 넣고, ㉢에는 ‘그러니까’를 넣어야 한다.

정리하면 ‘㉠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래, ㉣ 그러니까’이다. 정답은 ③이다.

**10**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 ①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나 있다.
- ②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이 드러나 있다.
- ④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516쪽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보기>는 시인 황지우(1952~)의 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 구나」의 전반부이다. 이 시는, 영화관 관객인 시적 화자가 영화를 감상하기에 앞서서 애국가를 들어야 했던 억압적인 시대의 현실을 배경으로, 자유에 대한 갈망과 좌절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어진 문제는,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 자기들끼리 ㉠ 끼룩거리면서 /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에서 밑줄 친 ㉠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하여야 적절한지를 묻고 있다.

- ① 시적 화자는, “삼천리 화려 강산”의 화면과 함께 흘러나오는 “애국가를 경청한다”고 하지만, ‘경청’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억압적인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영화 화면을 꾸며낸 현실로 바라보면서 암울한 시대의 허위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시적 화자의 처지와 다르게 자유로운 존재인 ‘흰 새 떼’들이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애국가가 흐르는 “삼천리 화려 강산”의 정경을 깨고 조롱하듯이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 ‘조롱’하는 의미가 담긴 의성어 ‘끼룩거리면서’를 통해 군사 독재정권에 대한 풍자적이고 냉소적인 시적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 끼룩거리면서’에 대하여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이다.
- ③ 시적 화자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군사

독재정권의 억압과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획일화를 강요받은 군사문화로부터 벗어나 새 떼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시적 화자는, 새 떼들이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처럼 억압적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애국가가 끝나면 그냥 자기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좌절감을 보여준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강조할 뿐, 이를 이겨내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맞도록 언어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예로는 ㉠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는 경우, 아예 새로운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①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② 예전에는 ‘통닭’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치킨’이라고 한다.
- ③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로 ‘아점’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 ④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마마’라는 말도 이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정답 ①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239쪽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의미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고 반대로 축소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 <보기>에서 밑줄 친 “㉠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는 ‘의미 영역의 확장’과 관련한다. 예전에는 ‘다리 [脚]’가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켰으나 현대에는 ‘책상’이나 ‘지게’의 다리 같은 무생물에도 쓰이는 것과 같다.

- ①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었으나,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의미 영역이 확장된 결과이다.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다. 정답이다.
- ② ‘통닭’은 ‘통째로 익힌 닭고기’이며, ‘치킨’은 ‘조각낸 닭고기튀김’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참조하여 “예전에는 ‘통닭’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치킨’이라고 한다.”를 보면, 같은 대상을 표현하던 말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경쟁에서 이긴 쪽은 계속 쓰이고 다른 쪽은 덜 쓰이게 된 경우이다. ‘언어의 발전’에 해당한다.
- ③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로 ‘아점’이라는 말이 나타났다.”에

서 '아점'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어휘가 나타난 예에 해당한다. '언어의 생성'에 해당한다.

④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마마'라는 말도 이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에서 '마마'는, 원래 쓰이던 대상이나 개념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어휘가 사라진 경우로, 언어의 소멸에 해당한다.

##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 보기 |  
 훈민정음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소리의 체계에 따라 문자의 모양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음에서 조음위치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 ① 목청, 'ㅇ'과 'ㅎ'
- ② 윗잇몸, 'ㄴ'과 'ㄷ'
- ③ 쉼입천장, 'ㄱ'과 'ㅋ'
- ④ 여린입천장, 'ㅅ'과 'ㅆ'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242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훈민정음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상형(象形)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었다. 그중 자음은 기본자 'ㄱ, ㄴ, ㄹ, ㅁ, ㅂ, ㅅ, ㅇ'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한 가획자와, 예외적인 글자인 이체자를 만들었다. 주어진 문제는,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 "조음위치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대한 예를 찾는 유형이다.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각 선택지에서 든 예시가 '기본자와 가획자의 연결인지', 그 두 글자의 '조음위치가 동일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입술, 'ㄹ'과 'ㄴ'〉(또는 〈입술, 'ㄹ'과 'ㅍ'〉)의 경우, 이는 입술소리(순음)의 기본자가 'ㄹ'이며 가획자가 'ㄴ', 'ㅍ'인 점에서 그 연결이 옳고, 이때 두 글자의 조음위치가 모두 '입술'인 점에서도 옳다.

- ① 〈목청, 'ㅇ'과 'ㅎ'〉의 경우, 이는 목구멍소리(후음)의 기본자가 'ㅇ'이며 가획자가 'ㅎ', 'ㅎ'인 점에서 그 연결이 옳다. 그러나 이때 두 글자의 조음위치가 모두 '목청'이 아니다. 'ㅎ'은 목청소리이지만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기 때문이다.
- ② 〈윗잇몸, 'ㄴ'과 'ㄷ'〉의 경우, 이는 혀소리(설음)의 기본자가 'ㄴ'이며 가획자가 'ㄷ', 'ㄷ'인 점에서 그 연결이 옳다. 이때 두 글자의 조음위치가 모두 '윗잇몸'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옳다. 따라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로 가장 옳다. 정답이다.

③ 〈셴입천장, 'ㄱ'과 'ㅋ'〉의 경우, 이는 어금닛소리(아음)의 기본자가 'ㄱ'이며 가획자가 'ㅋ'인 점에서 그 연결이 옳다. 그러나 이때 두 글자의 조음위치가 모두 '셴입천장'이 아니다. 'ㄱ'과 'ㅋ'은 모두 '여린입천장소리'이다.

④ 〈여린입천장, 'ㅅ'과 'ㅆ'〉의 경우, 이는 잇소리(치음)의 기본자가 'ㅅ'이며 가획자가 'ㅆ', 'ㅆ'인 점에서 그 연결이 옳다. 그러나 이때 두 글자의 조음위치가 모두 '여린입천장'이 아니다. 'ㅅ'은 '잇몸소리'이며, 'ㅆ'은 '셴입천장소리'이다.

## 13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시 7급

- 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명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부사]
- ②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라. [의존명사]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조사]
- ③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부사]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명사]
- ④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형용사]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함부로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동사]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72쪽, 76쪽, 78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국어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일 때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한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이 영화관에 갔다."에서 '같이'는 '함께'의 뜻으로 쓴 부사이며, "소같이 일만 하신다."에서 '-같이'는 '-처럼'의 뜻으로 쓴 조사인 것과 같이, 한 단어 '같이'가 부사와 조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주어진 문제는, '품사의 통용'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 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에서 '오늘'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의 뜻을 지닌 '명사'로 쓰였다. 조사를 붙여 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에서 '오늘'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의 뜻을 지닌 '부사'로 쓰였다. 한 단어 '오늘'이 '명사'와 '부사'로 통용되는 예이다.
- ②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라."에서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였다. 앞말에 띄어 쓴다.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에서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였다. 앞말에 붙여 쓴다. 한 단어 '만큼'이 '명사'와 '조사'로 통용되는 예이다.
- ③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에서 '비교적'은,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도보다 꽤'의 뜻으로 '편리하다'를 한정하는 '부사'로 쓰였다.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에서 '비교



에 해당한다. 즉 어미가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거나, 어간이 바뀌면서 어미도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① “바짝 쫓 찌개를 다시 끓였다.”에서 밑줄 친 ‘쫓’은,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의 뜻을 지닌 동사 기본형 ‘줄다’의 어간 ‘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이 붙은 형태이다. 한글맞춤법 제18항 “1. 어간의 끝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으)오, -(으)르’ 앞에서 줄어들 적”에 따라 동사 ‘줄다’는, 어간 ‘줄-’의 끝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앞에서 탈락하는 용언이다. ‘ㄹ’불규칙활용이었으나, 단순한 소리의 탈락으로 밝혀진 이후 현재는 규칙활용으로 본다. 즉, 어간의 기본형태가 바뀌었는데 ‘탈락’이라는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인 것이다. 따라서 ‘바짝 쫓 찌개’에서 ‘쫓’의 표기는 ‘줄- + -ㄴ’의 꼴로 맞춤법에 맞다.

② “가을이라 그런지 은행잎들이 정말 노랗네.”에서 밑줄 친 ‘노랗네’는, 형용사 기본형 ‘노랗다’의 어간 ‘노랗-’에 ‘감탄’의 뜻을 드러내는 종결어미 ‘-네’가 붙은 형태이다. 한글맞춤법 제18항 “3. 어간의 끝 ‘ㅎ’이 어미 ‘-네’나 모음 앞에서 줄어들 적”에 따라 형용사 ‘노랗다’는, 어간 ‘노랗-’의 끝 ‘ㅎ’이 어미 ‘-네’ 앞에서 줄어드는 용언이다. ‘ㅎ’불규칙활용으로, ‘노랗네’의 표기는 맞춤법에 맞다. 그런데 2015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에서 ‘ㅎ’불규칙용언이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 현재는 ‘노랗네’의 표기도 맞춤법에 맞다. 한편 ‘노랗다’의 어간 ‘노랗-’에 어미 ‘-아’를 붙일 때에는 어미를 ‘-애(-애)’로 나타내므로 ‘노랗- + -아’를 ‘노래’로 표기한다. 이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불규칙활용이다.

③ “앉은 자세가 곧바라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에서 밑줄 친 ‘곧바라야’는, 형용사 기본형 ‘곧바르다’의 어간 ‘곧바르-’에 조건 의 뜻을 드러내는 연결어미 ‘-아야’가 붙은 형태이다. 한글맞춤법 제18항 “9. 어간의 끝음절 ‘ㄹ’의 ‘ㄴ’이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리’로 바뀔 적”에 따라 형용사 ‘곧바르다’는, 어간 ‘곧바르-’의 끝음절 ‘ㄹ’ 뒤에 어미 ‘-아야’가 결합할 때, 어간 모음 ‘ㄴ’이 줄면서 ‘ㄹ’이 앞 음절 받침으로 올라붙고, 어미 ‘-아야’가 ‘-라야’로 나타나는 용언이다. ‘곧바르- + -아야 → 곧바라야’의 형태로, ‘ㄹ’불규칙활용을 한다. 따라서 ‘곧바라야’의 표기는 ‘곧바라야’로 고쳐 적어야 맞다.

④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에서 밑줄 친 ‘저러나’는, 형용사 기본형 ‘저렇다’의 어간 ‘저렇-’에 연결어미 ‘-나’가 붙은 형태로,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끝 ‘ㅎ’이 줄어드는 활용이다. 어간의 끝 ‘ㅎ’이 ‘ㄴ’이나 ‘ㄹ’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줄어드는 ‘ㅎ’불규칙활용이다. ‘저렇다’가 ‘저러니, 저러면’으로 바뀌는 활용이다. 따라서 ‘저러나’의 표기는 맞춤법에 맞다. 한편 한글맞춤법 제18항 3.에 따르면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이에 따라 ‘노랗-’에 ‘-아’가 결합하면 ‘노래’와 같이 활용하고, ‘누렇-’에 ‘-어’가 결합하면 ‘누레’와 같이 활용하지만,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등은 ‘이래, 그래, 저래’ 등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6**  
 <보기 1>에 이어질 글을 <보기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1】  
 구글은 몇 년 전부터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보기 2】  
 (가) 다시 말해 독감과 관련된 단어 검색량을 보면, 실제 독감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해보았더니, 검색 빈도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 수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 이는 검색 빈도수가 개인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개인의 유전 정보와 진료 정보 등이 합쳐지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라) 그 결과, 매년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독감 이름, 독감 예방법 등)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 ① (가)-(나)-(라)-(다)
- ② (가)-(라)-(나)-(다)
- ③ (라)-(가)-(나)-(다)
- ④ (라)-(나)-(가)-(다)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91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글의 내용을 적절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유형이다. 글의 순서를 잘 잡기 위해서는 ‘접속어’를 먼저 찾고 각 문장을 요약해 보고, 글의 전반적인 흐름과 논리적인 구조로 배열해 보아야 한다. 주어진 문제는 <보기 2>의 (가), (나), (다), (라)를 문맥에 맞게 나열하는데 ‘조건’ 하나가 더 있다. <보기 1>에 이어질 글을 <보기 2>에서 먼저 찾는 것인데, <보기 1>을 보니까 ‘독감 관련 검색어 연구를 실시했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어질 글은, 연구 결과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보기 2>에서 각 문장의 접속어를 찾으면서 서술어 중심으로 요약했더니 다음과 같다.

- (가) 다시 말해 ~ 검색량을 보면, ~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나) 그리고 ~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다) 이는 ~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 (라) 그 결과, ~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서 <보기 1> ‘연구를 실시했다.’에 이어질 글을 <보기 2> ‘그 결과, ~’로 잡으면 (라)를 전개 순서의 맨 앞에 세울 수 있다. (라)의 서술어 ‘발견했다’와 (나)의 서술어 ‘발견했다’가 일치하는 것



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로봇은 인간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로봇이 있는가 하면, 고도의 정밀한 작업을 한 치의 착오 없이 해내는 로봇도 있다. 또 어떤 로봇은 환자를 돌보아 주기도 한다.”라는 글을 보면, ‘편익’과 ‘복지’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위험 작업 로봇, 정밀 작업 로봇, 환자 돌보미 로봇 등의 다양한 실례를 들어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검토한 뒤 제3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라고 함은, 글의 전개 방식에서 변증에 해당한다. 변증은 어떤 대상의 ‘양면’을 살펴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고과정이다. 변증은, ‘정(正, thesis) - 반(反, antithesis) - 합(合, synthesis)’의 단계로 정리한다. 서로 다른 두 주장(정, 반)을 분석하여 정(正)의 면모를 드러내어 말한 다음에 그에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반(反)의 측면을 제시한 후, 대립 또는 모순의 관계를 해소하는 결론으로 합(合), 제3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변증’이다. 예를 들어 “이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다. 이는 음식을 씹되 그 맛을 모르고, 혀는 맛볼 수는 있으나 맛이 우러나게 씹을 수는 없다. 이 둘이 어울려 제 기능을 다할 때 음식으로부터 즐거움과 건강을 얻을 수 있듯이,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존재하기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라는 글을 보면, ‘정 - 반 - 합’의 변증 방식으로, ‘이’와 ‘아버지’는 ‘딱딱하다, 엄격하다’의 유사한 속성으로 [정], ‘혀’와 ‘어머니’는 ‘부드럽다, 자애롭다’라는 유사한 속성으로 [반], 그러한 [정], [반]의 대립적인 속성을 조화롭게 [합]하여 제3의 결론을 짓고 있다.

③ “대상의 특성을 분석한 뒤 대조하여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함은, 글의 전개 방식에서 대조에 해당한다. ‘대조’는, 서로 비슷비슷하여 구별이 어려운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두 대상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주어진 <보기>를 보면, ‘음악적 시간’의 공통 소재를 가지고 두 대상, ‘우리 음악’과 ‘서양인의 음악’ 사이의 음악적 시간 기준에 대한 차이점[우리의 음악(호흡 - 1박은 한 호흡의 반), 서양인의 음악(맥박 - 1박은 맥박 1회)]을 밝힘으로써 ‘대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보기> 글의 서술 방식이다. 정답이다.

④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한 뒤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함은, 글의 전개 방식에서 통념 반박에 해당한다. 통념을 제시하고 이에 반박하는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채팅은 입말과 문자 의사소통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인터넷이 표준 철자법을 파괴한다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입말을 통해 언어생활을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텍스트에 걸맞은 새로운 글쓰기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는 글을 보면, 구체적인 사례(인터넷 채팅)를 먼저 제시하였고, 통념(철자법 파괴)을 반박(언어생활 다양화)하여 해결책(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19**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서울시 7급**

【보기】

미디어의 첫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쇄술의 발전은 지식 제도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변화는 학교와 교사의 기능에서 생겨났다. 다시 말해서, 학교와 교사 없이도 독학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왔던 것이다. 독서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제도, 또는 기억이라는 개인의 습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기억의 관습에 가한 변화는 인쇄술 발달이 가져온 중요한 업적이다.

인쇄술의 발달로 당연히 책이 양산되고 책값 역시 저렴해졌을 뿐 아니라,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채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레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 ①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 ②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 ③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사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 ④ 저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써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하였다.

정답 ①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6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추론적 이해의 문제를 보면, 글에 숨은 의미 또는 생략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과, 앞에 다루어졌을 내용이나 뒤에 이어질 내용을 추리해 보는 것 등이 있다. 주어진 문제는, <보기>에 이어질 내용을 추론한 선택지가 적절한지 그 여부를 묻고 있다.

<보기>를 먼저 요약해 보면, 첫째 문단은 ‘인쇄술의 발전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 학교와 교사의 기능에서 생겨났다. 다시 말해서, 독학 ‘책’이 나왔던 것이다. 개인의 습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기억의 관습에 가한 변화는 중요한 업적이다.’와 같고, 둘째 문단은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양산되고 책값도 저렴해지고, 다양한 책들이 나왔다. 그 결과 대조와 비교의 기회가 많아졌으며,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와 같다. 여기에 이어질 셋째 문단의 내용은,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독서 대중이 증대한 결과로 지식의 독점이나 권력화가 무너지는 상황 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① <보기>의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채”,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를 통해 인쇄술의 발달 이전에 일부 계층이 가진 지식 독점에 따른 권위주의적인 위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①에서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추론함은 적절하다.

② <보기>의 “학교와 교사 없이도” “독서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를 통해 교사의 권위가 공고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②에서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라고 추론함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의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독서 대중이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를 통해 지식 사회가 더 이상 지식을 독점할 수 없고 지식 독점에 따른 권력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③에서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사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라고 추론함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의 “독학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왔던” 것과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상황을 통해 저자의 권위에 의존하기보다 책의 내용을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동적인 독서 대중이 생겨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④에서 “저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써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하였다.”라고 추론함은 적절하지 않다.

이르는 말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인상여(蔣相如)와 염파(廉頗)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우정’을 뜻한다.

④ 단순호치 丹脣皓齒

‘붉은 입술과 흰 이’의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한 말이다. ‘미인’을 뜻한다. 사자성어 중 뜻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하나이다. 정답이다.

**20**

사자성어 중 뜻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7급

-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 ③ 문경지교(勿頸之交)
- ④ 단순호치(丹脣皓齒)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177쪽, 178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① 지란지교 芝蘭之交

지초(芝草)와 난초(蘭草)의 교제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맑고도 고귀한 사귀음을 이르는 말이다. ‘우정’을 뜻한다.

② 금란지계 金蘭之契

쇠처럼 날카롭고 난초처럼 향기 나는 친구 사이의 두터운 사귀음을 말한다. ‘우정’을 뜻한다.

③ 문경지교 勿頸之交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를



▼ 카페 <기출세포 99 공무원시험>에서 진행되는 학습코칭 후기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9월 3일 1일차 숙제검사를 받을 때만 해도 "책 하나 잘 샀다."는 정도였는데 하루를 넘기고 또 하루를 넘기고 그렇게 14일차까지 1회독을 해냈을 때 오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국어 공부의 맛을 느꼈던 것일까 한 주를 쉬고 2회독을 시작하기로 했다.  
 학습코칭 3기에 참여하여 9월 23일 다시 1일차 인증샷을 찍었다.  
 마치 인생샷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각 일차마다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공부했다.  
 2회독을 하면서 1회독을 할 때 지나쳤거나 흘렸던 내용을 챙기는 것도 좋았고, 헛갈렸거나 까먹었던 내용을 확실히 했던 것도 좋았다.  
 2회독 1일차에서는 문지방을 넘듯이 가볍게 들어섰다.  
 2일차 3일차 4일차에서는 이 책의 흐름에 따라 꼼꼼하게 읽는다는 생각으로 국어문법 공부를 하였다.  
 5일차 6일차에서는 한 고비를 넘어야 할 곳이라 그런지, 쉽지는 않았다.  
 코칭님의 조언에 따라 '고사성어, 고유어, 한자어'를 각각 8등분을 했다.  
 해당 일차에 인증샷을 올리고, 7일차부터 '고사성어, 고유어, 한자어'를 각각 1/8씩 반복 학습을 했다.  
 8일차 9일차 10일차에서 한글맞춤법, 10일차 11일차에서 표준어규정, 12일차에서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과 같은 어문규정을 공부하면서는 앞서 공부한 국어문법도 더욱 체계화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인 문제해설 스타일은 정말 달랐고 친절했다.  
 1회독을 할 때에는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었고, 2회독을 할 때에는 앞뒤 헝클어진 실타래를 술술 풀어낼 수 있는 책이었다.  
 13일차 14일차에서 독해의 문제유형을 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문제풀이의 스킬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비문학/문학에 대한 국어지식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2회독을 마치면서 국어 자신감을 크게 얻은 것 같다.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이 책 한 권이면 나만의 오답노트는 분명한 것 같다.  
 코칭님, 3기를 통해 2회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출세포 99, 파이팅!"

▼ 공드림 11층을 아시나요?

<기출세포 매일국어> 자료 제공, 11층... 자주 들러 주세요.



▼ 공짜 학습코칭, 참여해 보세요!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7쪽 학습 진도표에 따라  
 각 일차마다 '학습 후 인증샷'을 올려주시는 방법으로  
 공짜 학습코칭을 진행합니다.  
 '열공', 응원합니다. 참여해 보세요.

